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11

2021 November
Vol.546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11

Contents

2021 November
Vol.546



COVER STORY

자주적인 교정행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가족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달다 시선이

교정 ZOOM IN 04
정읍교도소

생각의 방향 10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도전

지금, 이 사람 12
패션 브랜드 '멜로페'
박승희 대표

별별 알고리즘 16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다음을 위한 도전



일상을 펼치다

부캐를 부탁해 18
카트에 신고 달린
아들과의 진한 우정
진주교도소 교감 이용호

선배에게 듣다 22
정읍교도소 교감 박우식

교정인 원픽 26
수용자들에게 건넨
따스한 배려

힐링 메신저 30
내장산 단풍이 빛어낸
'주홍빛 향연' 전복 정음

지구 초대석 34
환경도 생각하고 혜택도 챙기는
친환경 포인트 제도

물음의 소통 36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
변화한 직장인의 삶과 근무 방식



세상을 품다

관계 반창고 38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알쓸꿀잡 40
겨울철 화재 예방 편

머니 레시피 42
지구를 살리고 통장도 살찌우는
'그린 재테크'

인문학 살롱 44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오늘의 건강 46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
어깨 건강 이야기



소식이 오다

교정 이모저모 48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대나무숲 일기 1 50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대나무숲 일기 2 52
철없던 모습을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교정 리포트 54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①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일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1년 11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11월호 Vol.546
www.corrections.go.kr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좌절과 포기가 아닌 새로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는 정읍교도소



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이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변화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수용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더불어 수용자들이 건강한 이웃으로 거듭나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정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를 위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교정환경 조성



정읍교도소는 직원 복지와 지역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개방, 체육 시설 활용 등 쾌적한 교정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정한 근무 태세로 올바른 수용 질서를 확보해 더욱 안전한 교정시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용 생활에 활기를 더하는 수용자 처우 개선과 인권 향상

정읍교도소는 수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해 수용자 문화센터, 리폼 교육훈련 등을 운영함으로써 활기찬 수용 생활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센터 내 도서관은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도전

작가 밀란 쿤데라는 <시인이 된다는 것>에서 말합니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다음 처음으로 셈을 해 보는 것. 그 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작가는 끝까지 가 보지도 않고 삶이 이렇다 저렇다 미리 계산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인에게만 필요한 덕목은 아닙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기의 결과만을 두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라는 것, 그 끝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거기까지 가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 재밌고 독특한 방법으로 끝까지 한번 가 보기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면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컸던 이 사람은 그걸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한 방법은 거절당하기. 거절의 끝에는 뭐가 있을지, 그는 최대한 많이 끊임없이 거절당하기로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난생처음 보는 사람에게 엉뚱하고 황당한 부탁을 하는 거죠.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리필하기. 경찰에게 경찰차를 운전하겠다고 말하기. 호텔에서 무료로 목어 보기. 남의 집 정원에서 축구하기. 이렇듯 일부러 거절당할 일만 골라서 부탁한 이 남자, 실제로 많은 일을 거절당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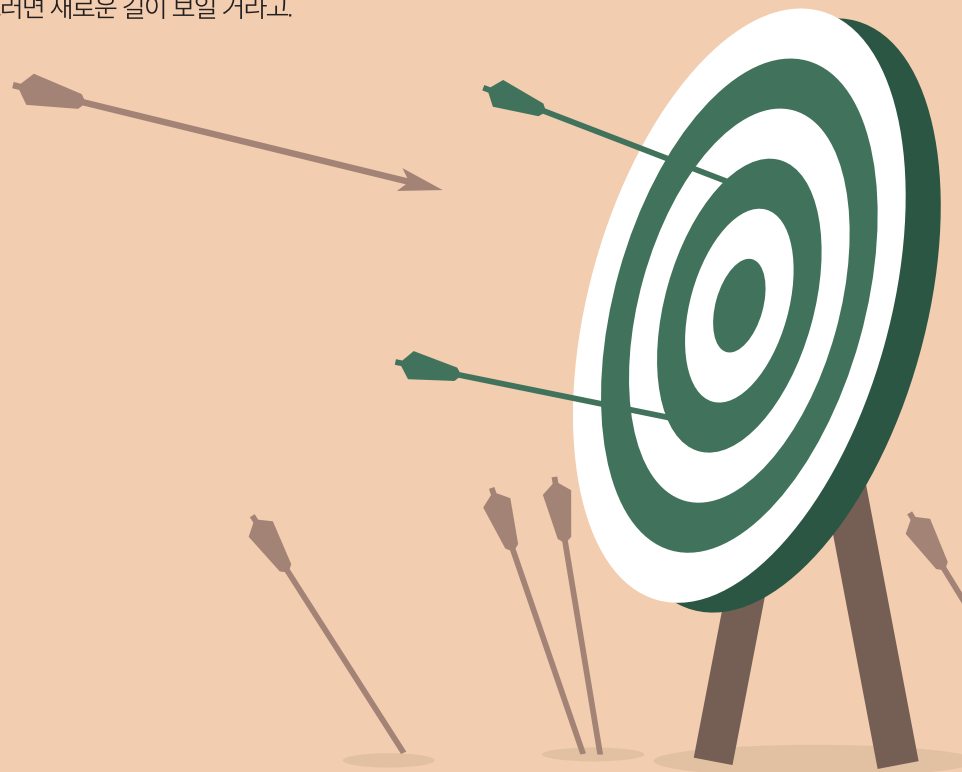
하지만 한 번 두 번 거절을 당할 때마다 거절과 실패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남자의 황당한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일도 실제로 해 보니까 달랐던 거죠. 남자는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자는 것. 그 도전 앞에서는 거절당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 일이 잘 안돼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

새로 시작할 기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더 잘 보일 텐데요. 절망의 끝에서 좌절과 포기 대신에 또 다른 길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요리사로 성공해 승승장구하던 이 사람. 그런데 암에 걸려서 미각을 잃고 맵니다. 요리사로서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죠. 하지만 그는 요리사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비록 혀의 감각은 사라졌지만, 음식 재료에 대한 감각과 기억력은 그대로였습니다. 맛을 잃어버렸기에 오히려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독창적인 메뉴에 더 도전할 수 있었죠. 그런 노력 끝에 그는 요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최고 요리사 상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잃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지만 가로막힌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젊은 시절, 한때의 잘못으로 방황하며 힘들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꼬리표 때문에 지원한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죠. 하지만 그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 주고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해 준 곳이 있습니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이 회사. 나이나 성별, 학력이나 경력은 상관없이 채용은 오직 선착순으로만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곳은 빵을 만드는 회사, 그레이스톤 베이커리입니다.

“우리는 브라우니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브라우니를 만듭니다.” 회사의 경영 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잘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습니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쉽게 가닿는 곳은 좌절과 포기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미브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 웰위치아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서 웰위치아가 살아가는 방법은 안개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피어오른 안개를 온 힘을 다해 끌어모아 만든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로 메마른 모래 위에서 살아남고 꽃도 피웁니다. 삶은 때로 안개를 모아서 물방울을 만드는 것 같고, 메마른 모래 위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눈물겹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사람에게 삶은 등을 두드려 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 보라고.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일 거라고.



국가대표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경계를 넘어 삶의 무대를 확장하다

패션 브랜드 '멜로페'
박승희 대표

박승희 대표에게 '도전'이란
삶을 사랑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다.
운동선수에서 올림픽 국가대표로,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그리고 은퇴 후 패션 디자이너까지.
여러 갈래의 도전을 거치며
삶의 무대를 확장했다. 이 여정에는
늘 '진정성'이 밑바탕이 됐다.



두 발로 직접 뛰며 첫 브랜드 론칭

온 나라를 휩쓴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실린 무게는
가늠조차 되지 않을 때가 많다. 7년 전, 이제 갓 스무 살
을 넘긴 박승희 선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2관왕에 올랐다. 한 종목에
서 세계 최정상에 오른 뒤,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국가대표로 나
섰다. 두 종목에서 국가대표가 될 정도의 기량을 갖추
는 일이 극히 드물기에 늘 주목을 받아 왔다. 17년간 이
어 온 선수 생활에서 큰 전환점을 여러 번 맞이한 그녀는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섰다. 은퇴 후 패션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남다른 행보를 이어
가는 중이다.

"주변 사람들 옆에 아홉은 제가 코치를 할 줄 알았다고
해요. 오랫동안 운동을 해 왔던 터라 자연스러운 수순
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은퇴 후 어렸을 때 품
었던 꿈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전부
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기에 선수 생활 도중에도 훈련이
없는 주말마다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곤 했거든요. 결심
이 선 이상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이 일을 진
정으로 좋아하는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 한 발 한 발 내딛기에 막막하
기도 했고 두려움도 컸다. 그럴수록 더욱 '진심'을 담아

나아가기로 했다. 패션 디자인 학교 과정을 수료하는가
하면 가죽공예 공방에서 직접 가방을 만들어 보며 경험
의 폭과 깊이를 넓혀 갔다. 점차 가방 디자인에 매료됐
고, 좋아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의지로 걸음을
땀다. 좋은 디자인을 고민하고, 직접 발품과 손품을 팔
며 제품을 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그녀는 자신의 첫
브랜드 '멜로페(MELOPE)'를 론칭했다.



박승희



경험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

멜로페는 '음악 선율'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박승희 대표는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 선율이 있듯, 자신의 브랜드를 접하는 모두가 원하는 리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멜로페가 추구하는 디자인 가치는 '자연스러움'에 맞닿아 있다. 박승희 대표는 평소 일상 속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데, 누군가와 대화할 때나 전시, 영화, 음악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과하지 않고 삶에 녹아드는 디자인의 가방은 고객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고객들의 피드백은 디자이너로서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일상을 떠올리게 하는 도움말이 되곤 한다.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서 힘을 많이 얻고 있어요. 한 고객이 제품 사진을 찍어서 정성스럽게 후기를 올려 주신 적이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어떤 점이 좋은지 장문의 글로 남겨 주셨어요. 애정을 담은 글을 보며 자신감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고객은 제 모습을 보

고 자신도 용기를 냈다며 SNS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참 몽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더욱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빙상과 패션, 전혀 다른 영역인 만큼 자신의 역할 또한 확연히 다르다. 선수 생활을 할 때는 목표를 향해 운동에만 몰입했다면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한 것조차 모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브랜드를 이끌어야 한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루하루 성장하는 중이라는 박승희 대표. 어려운 일 앞에서도 머뭇거리기보다는 재빨리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일을 할수록 경험의 중요성을 아주 많이 깨닫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되레 용기가 나더라고요. 한번 시도하면 두려움이 반 이상은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도전이든 처음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스스로 경험하고 실수도 해 보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행복

박승희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는 방송인으로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축구 선수로 활약 중인 것. 또 최근에는 쇼트트랙 경기 해설자로 데뷔했다. 오랜 선수 생활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한 경기 해설을 도맡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람'이라고 한다. 자신의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도전을 이어 가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브랜드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된 업무를 하나 정해 놓는 것보다 다양한 일을 해 보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선까지 다다르는 것도 중요하지요. 즐겁게 시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술한 시행착오를 겪어 온 박승희 대표. 도전이란 그저 두렵고 막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삶의 무대를 넓혀 주는 매개라는 걸 매 순간 깨닫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우선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해야 타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수용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는 교정 공무원 여러분도 행복한 일을 찾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용기를 내면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더 나은 다음을 위한 도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세상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은 당연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있는 후엔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우리는 지금 처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Life chang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결과만을 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
마음을 다해 끝까지 도전해 볼 것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해 볼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것
좌절과 포기가 아닌 기회를 향해 나아갈 것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할 것



막 레이싱을 끝냈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경주가 잡혀 있다. “여기에서 11월에 레이싱 대회가 열린다는데 한번 참가해 볼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다른 생각을 내놓는다. “인제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에서 카트를 탈 수 있대요. 거기도 같이 가요.” 이용호 교감이 흔쾌히 답한다. “그래,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해 보재(웃음)” 통영에서의 카트 체험은 끝났지만, 행복을 향한 이들의 경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깊게 뺨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장난감과 마주한 아기 같은 웃음꽃이 활짝 핀다.

자동차, 산악자전거, 낚시, 루어 낚시, 그리고 카트까지. 이토록 많은 취미를 공유하기에 두 사람 사이는 어느 부자처럼 어색하거나 딱딱하지 않다.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고개를 돌려 서로의 상황을 살피며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용호 교감은 스물이 넘은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는 아들이 고맙다. 이상헌 군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분야를 알려 주고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 준 아버지를 존경한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24년째 이들을 함께하도록 만든 원동력이다.

“물론 그사이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들 손에 이끌려 루어 낚시를 가느라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아들은 낚시를 하면서 허리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아들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톱과 제리처럼 티격태격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 온 존중과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와 놀아 주는 아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항상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승부욕 부자’의 불꽃 튀는 레이싱

이윽고 커피 내기의 승자를 가릴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이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헬멧을 눌러쓴다. “오늘 베스트 기록도 냈는데, 커피는 양보하는 게 어때?” 아버지의 장난기 어린 이야기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이왕이면 베스트 기록을 깨야죠. 아버지는 조심히 따라오기만 하세요.(웃음)” 부자지간이라지만 승부는 승부. 자신이 탈 카트를 점검하던 이상헌 군이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가 이상한 것 같이라며 카트를 교체한다. “아무래도 반드시 이길 생각인 것 같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타이어가 ‘끼이익’ 굉음을 내며 내달린다. 초반 기세는 이용호 교감의 몫이다. 총 다섯 바퀴 중 첫 번째 바퀴에서 앞선 아버지가 내심 안도하며 뒤를 돌아보는 순간, 아들이 아버지의 카트를 제친다. 아무래도 뒤에서 아버지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읽은 모양. 그 뒤로는 아들의 독무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진다. 이용호 교감이 역시 당해 낼 수 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마지막 바퀴까지 완주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으로 V 자를 그린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엄지를 척 내민다. 누가 봐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풍경이다.

어느새 두 사람의 손에는 이용호 교감이 산 커피가 들려 있다. 이제



교정공무원은 교화의 이정표입니다



박우식(정읍교도소 보안과 교감)

교정공무원은 수용자를 교정교화해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우식 교감은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이정표'라고 표현했다. 교정공무원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며 교정교화에 임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출소 후 삶이 상당 부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읍교도소 보안과에서 당직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박우식 교감입니다. 1989년 10월에 임용된 후 군산교도소, 전주교도소를 거쳤고, 작년 7월 정읍교도소에 와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정공무원을 하고 있던 친구의 권유로 임용 시험을 본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32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네요. 그간 별다른 일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요즘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Q. 교감님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당직교감의 본분은 현장 근무자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기도 하지만, 일일이 간섭하고 지시하다 보면 저도, 현장 근무자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죠. 그렇기에 감독자로서 최상의 업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히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귀여겨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만큼, 기관장 및 부서장과 후배 교정공무원들이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 수용자들에게 삶에 대한 의지와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교도소에서 만난 다른 수용자에게 현혹돼 잘못된 방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수용자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이러한 시도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패 후에는 허무감으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에 늘 수용자에게 '성실하게 사는 삶의 가치'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루고 있다는 점, 과욕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신교육, 종교 집회, 전문가 상담 등을 적절히 활용해 수용자들의 마음에 올바른 삶의 의지와 출소 후 인생에 대한 도전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Q.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교화된 수용자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2002년에 만난 한 수용자가 기억납니다. 수용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가족과 연락이 두절돼 자해 및 자살을 시도하는 등 거의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수용자였는데요.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상담하며 그간의 이야기와 애로 사항을 정성껏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신뢰감을 형성하며 수용자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아울러 출소 시까지 매달 2만 원씩 영치금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후 그 수용자는 한 건의 사고도 저지르지 않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말을 남긴 뒤 출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폭력으로 여러 차례 복역하며 가족과 연이 끊긴 한 수용자도 생각합니다. 그는 출소했지만 연고가 없었던 데다 취업마저 되지 않아서 생계유지가 힘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안 뒤 한 가구 제작업체에 신원 보증을 서 주고 그를 취업시켰습니다.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의지와 저의 교화 의지가 만들어 낸 작은 기적이었죠.

Q. 후배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를 대할 때 유의했으면 하는 점이 있나요?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지상정으로 몇몇 수용자와 조금 더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질이 좋지 않은 몇몇 수용자의 경우 인간적인 친밀감을 앞세워 교정공무원의 약점을 잡고 부정행위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일정한 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하나, 수용자 폭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아무리 잘해줘도 일부 수용자들은 교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침을 뱉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데요. 그럴 때는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되, 폭력으로 되받아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독직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교감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퇴근 후이나 주말에는 집 근처 산에서 두 시간 정도 등산을 즐기고, 틈틈이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는 운동만 한 활동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조심하는 가운데 선후배들과 조출한 술자리를 가지며 2년여 동안 쌓아 둔 회포를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Q. 교감님의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정년퇴직이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 32년간 별일 없이 교정공무원 생활을 이어 온 만큼, 끝까지 사고 없이 퇴임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년을 위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외에 앞으로는 사회봉사도 꾸준히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면, 교정공무원 출신으로서 더욱 풍요로운 인생 후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Q. 후배 교정공무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수용자의 성품과 상황은 제각각 너무나 다르기에 모든 수용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수용자들을 잘 교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교정공무원은 그 과정의 중심에 서 있죠. 그러니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자신의 업무와 수용자 교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수용자들에게 건넨

따스한 배려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온 만큼, 여건이 아무리 좋다 해도 수용자들의 생활은 팍팍하기 마련이다. 정읍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들에게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소 후 사회 복귀에 대한 도전 정신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배려를 교도소 곳곳에 심었다. 월간 <교정>이 이번에 준비한 선물은 그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답이다.



교도소와 수용자 생활에 긍정과 활기를 더하다

정읍교도소에 들어서면 아름답고 정감 가는 모습이 연이어 펼쳐진다. 앞뜰은 정갈하면서도 고즈넉한 맛이 살아 있고, 내부 시설은 수용자들의 교화와 복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정읍교도소가 비교적 최근에 개소한 교정기관이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의 활기차고 긍정적인 생활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배려를 아낌없이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시설은 바로 수용자 문화센터다. 도서관, 영상실, 음악감상실, 가족 접견실이 이곳에 한데 모여 있다. 수용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 수용자는 매월 1~2회, 한 번에 1~2시간씩 문화센터를 이용하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이 중 가장 돋보이는 시설은 도서관이다. 정읍교도소 도서관은 공공, 학교, 병영, 전문, 교도소 등 전국 2,242곳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 53개소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정공무원들이 도서관과 문화센터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정읍교도소는 출소 예정자 대상 채용 면접 행사의 날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여성 수용자 대상 리폼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등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취업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읍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이 수용자의 복지를 살뜰히 챙기고 있기에, 월간 <교정>도 기쁜 마음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일상을 챙길 수 있는 물품을 준비했다.

쌀쌀한 늦가을을 한결 따뜻하게 '타워형 리모컨 온풍기'

10월 초중순을 덮친 이상 한파가 겨울을 빠르게 끌어당기고 있다. 정읍교도소를 둘러싼 공기도 제법 쌀쌀해졌고, 사무실에도 서늘함이 감돈다. 서서히 난방용품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러한 계절 변화에 발맞춰 월간 <교정> 취재진도 온풍기를 준비했다.

타워형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리모컨이 있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온풍기가 넘어지거나 과열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벼운 무게로 이리저리 가지고 다니기도 좋은 제품이다.

복지과 오원현 교도는 날씨가 유독 변덕스러웠던 10월을 보내며 올해 겨울엔 온풍기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다. 교도소 내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별문제는 없지만, 이번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날이나 사무실 같은 작은 공간을 덥힐 때는 온풍기가 무척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는 게 오원현 교도의 설명이다. “교도소 주변이 산지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데요.



앞으로는 온풍기 덕분에 추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좋네요.”
한편 총무과에서 영치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훈 교도는 온풍기의 가벼운 무게와 이동식 손잡이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성능 좋은 온풍기라도 일정 크기 이상의 공간을 덥힌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번에 선물 받은 온풍기는 휴대성이 좋아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작지만 실속 있고 알찬 선물을 준비해 주신 취재진 여러분의 센스가 돋보이네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웃음)”

**겨울철 미세 먼지를 말끔하게
‘무선 진공청소기 & 물걸레 청소기’**

겨울이 가까워지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바로 먼지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에는 먼지가 날리기 쉬운 데다, 중국발 미세 먼지까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철에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자주, 꼼꼼하게 생활공간을 청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게는 가볍고 성능은 강력한 핸디형 무선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를 정읍교도소 선물 목록에 포함하게 된 배경이다. “사실 청소는 도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청소기라도 무겁거나 가지고 다니기 힘들면 잘 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가볍지만 사용하기가 번거롭죠. 오늘 주신 진공청소기와 물걸레 청소기는 그 중간에 자리해 있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좋네요.” 이맘때면 청소 도구에 대한 고민에 빠지곤 했다는 보안과 신은규 교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사회복지과 김민선 교위가 신은규 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두 청소기의 기능을 꼼꼼하게 확인하더니,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정읍교도소는 전주, 광주, 군산 등 다른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많아요. 그분들의 경우 차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자동차 실내 청소가 건강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죠.

이 무선청소기는 청소봉을 뺀 채로 작동시킬 수 있어서 휴식 시간에 틈틈이 차를 청소하기에도 좋겠네요. 여러모로 유용한 ‘청소 친구’인 것 같습니다.(웃음)”

**허기진 오전을 든든하게
‘다용도 믹서 & 토스터’**

“저는 건강을 위해 아침을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상을 차리기는 번거로워서 주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바쁜 아침에는 그마저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 저녁에 미리 갈아 놓았다가 마시곤 하는데, 색깔이나 맛이 조금 변하는 게 아쉬웠어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과일만 가져와서 바로 믹서에 갈아 먹으면 될 것 같네요. 덕분에 한결 신선한 주스를 마실 수 있겠어요!” 직업훈련과 최재석 교도가 다용도 믹서를 발견하자마자 반색하며 말한다.

다용도 믹서 곁에는 토스터가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허기진 아침, 토스터에서 노릇노릇하게 갓 구워진 식빵을 먹으면 온몸에 따스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것이다. 여기에 믹서로 만든 주스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다. 복지와 박진석 교위의 머릿속에는 벌써 그 든든한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우리 교도소에는 젊은 직원이 많아요. 그들 대부분이 아침을 못 먹고 나오죠. 그래서인지 아침에는 분위기가 다소 처져 있기도 한데요. 다들 조금씩만 일찍 나와서 갓 구운 식빵과 신선한 과일 주스로 배를 채우고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나 든든할 것 같습니다. 배려심 가득한 선물을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장산 단풍이 빚어낸 '주홍빛 향연' 전북 정읍



정읍은 가을이면 주홍빛으로 물든다. 특히 옛날부터 조선 팔경의 하나로 꼽힌 정읍의 내장산 국립공원은 설악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정읍교도소는 형형색색으로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정읍시 소성면에 자리 잡고 있다.



내장사, 우화정 오색 단풍길

정읍의 길목은 단풍 시즌이면 북적임을 더한다. 얼굴과 마음까지 붉게 달아오른 행락객들이 거리를 채운다. 2015년 가을에 개칭한 정읍교도소 주변에도 해마다 가을이면 단풍이 내려앉는다.

국내 최대의 단풍산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내장산 국립공원이다. 내장산 단풍은 단풍잎이 얇아 붉은색이 잘 들고 색이 화려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 오색 단풍은 11월 초까지 절정을 이룬다. 내장산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는 내장사 초입의 단풍터널이다. 일주문부터 경내에 이르는 길은 단풍나무 108주가 200m가량 도열해 아득한 산책로를 만들어 낸다. 내장산 단풍터널은 정읍 1경에 속할 정도로 명소가 됐고 길은 등산복의 등산객들과 어우러져 붉은 향연을 연출한다.

내장사 길 초입, 물에 비친 수려한 정자 '우화정'은 인생 사진을 남기는 촬영 장소로 인기가 높다. 단풍터널과 우화정은 정읍교도소 직원들이 가을에 방문하면 좋은 곳들이다. 그중에서도 단풍터널은 인파가 몰리기 전, 이른 아침에 찾아가는 것이 좋다.

내장산 내장사는 최고봉인 신선봉을 주봉으로 서래봉, 장군봉 등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가운데 자리했다. 백제 무왕 시기에 영은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한때 50여 동의 대가람이 들어서 있었지만, 정유재란과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됐다. 지금 절의 대부분은 그 이후에 중건됐다.

봉우리, 산사 품에 안은 단풍 물결

내장산 단풍은 봉우리와 사찰을 따라 이어진다. 노령산맥 끝자락의 내장산 국립공원은 내장사와 함께 백양사를 품고 있다. 상왕봉 코스를 택하면 운문암, 백학봉을 거쳐 단풍 물결은 백양사로 흘러 내린다.

내장사 단풍이 화려하다면 백양사 아기 단풍은 선명하면서도 아기자기하다. 눈이 아릿한 풍경은 백양사 쌍계루에서 절정을 이룬다. 사찰 위 학바위에서 조망하면 백양사가 마치 '단풍 보자기'에 담긴 모습이다.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백양사는 흰 양이 환생했다는 전설이 서린 데서 '백양'이라는 이름이 유래됐다.

산사를 벗어나 금선폭포, 몽계폭포 등으로 연결되는 코스도 단풍의 색이 곱다. 호젓한 단풍 구경을 원한다면 입암산으로 향해도 좋다. 정읍 내장동에서 내장산 탐방안내소까지 이어지는 8km 길은 단풍로드로 명성이 높다. 차 안에서 내장산의 부드러운 능선을 감상하는 드라이브를 통해 오롯이 오색 단풍을 즐길 수 있다.

해송 숲 아래 구절초테마공원

단풍보다 한발 앞서, 정읍의 가을을 단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은 산 내면에 위치한 구절초테마공원이다. 해송 사이에 수줍게 담긴 산구절초가 향기로운 산책로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구절초테마공원은 2003년 체육공원으로 조성됐다가 2006년 구절초테마공원으로 재탄생됐다. 옥정호의 상류인 추령천이 에둘러 흐르는 작은 산 전체를 공원으로 꾸몄다.

공원 초입에는 분홍빛 바늘꽃(가우라), 보랏빛 아스타국화 등이 가을 손님을 반긴다. 바닥을 장식한 구절초 그림을 따라 걸으면 나무 장승을 지나 숲길 산책로가 이어진다. 약재로 쓰이던 구절초가 휘청거리듯 솟은 소나무 아래로 수줍은 정취를 뽐낸다. 구절초의 꽃말은 '순수'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원 생태습지에는 벼를 이용해 커다란 구절초를 형상화한 논이 펼쳐져 있다. 구절초꽃이 스러진 뒤에도 산책로는 고즈넉함을 간직한다. 테마공원에서 농교를 지나 옥정호까지 물길을 따라 걷기 좋은 옛길이 연결된다.



옥정호와 세계유산 무성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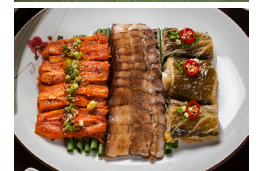
추령천 물길은 옥정호로 흘러든다. 옥정호를 잇는 길에 예전 '농다리'로 불리던 농교가 자리하고 있다. 투박한 외관의 다리에서 드라마 <타짜>, 영화 <남부군>을 촬영했다. 농교부터가 본격적인 옥정호의 시작이다. 섬진강댐 건립으로 형성된 드넓은 호수는 입실군까지 품에 안는다. 섬진강 본류인 옥정호의 새벽안개는 가을이면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정읍에는 빼어난 자연과 함께 오래된 서원이 조화를 이룬다. 칠보면 무성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서원이다. 무성서원은 이곳 태수를 지냈던 신라 말기 최치원과 국내 최초의 가사 '상춘곡'을 지은 정극인의 위패를 모신 사원이다. 태산서원으로 불리다 1696년 숙종 때 사액을 받아 무성서원이 됐다. 국내 9개의 대표 서원 중 전북 지역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서원은 정읍 무성서원이 유일하다. 무성서원은 정읍교도소 직원들이 아이들과 함께 찾으면 좋을 뜻깊은 공간이다. 정읍에는 무성서원 외에도 창동서원, 남고서원, 옥산서원 등 다양한 서원이 있다.



쌍화차 고을의 별미 '쌍화차묵은지삼합'

정읍은 쌍화차 거리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쌍화차로 유명한 고장이다. 최근 쌍화차를 곁들인 쌍화차묵은지삼합이 정읍의 별미로 떠오르고 있다. 다른 고장에서 보기 힘든 음식 조합인 쌍화차묵은지삼합은 도라지구이, 묵은지와 함께 쌍화차의 그윽한 향이 밴 수육까지 더해져 맛과 건강을 담아낸다. 쌍화차는 생강, 숙지황 등 20여 가지 약재와 밤, 은행, 잣 등의 고명이 어우러지는데 수육의 담백함과도 잘 어울린다. 도라지 역시 콜레스테롤 저하와 해독 작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구수하고 칼칼한 맛의 묵은지가 곁들여지는데, 묵은지에 도라지와 수육을 한 번에 싸 먹는 것이 깊은 맛을 음미하는 요령이다.



환경도 생각하고 혜택도 챙기는 친환경 포인트 제도

친환경 생활은 이제 우리 삶에 필수 요소가 됐다.
 우리의 건강과 자연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친환경 소비를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친환경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친환경 소비를 통해
 환경과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자.



풍성한 혜택 가득한 에코머니

에코머니는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에코머니 제휴 카드인 '그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탄소포인트제, 녹색소비, 결제 금액에 따른 포인트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린카드는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 형태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멤버십카드 중 선택해 발급받으면 된다.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비스는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로 운영)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산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그린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에 회원 가입 후 가정 에너지 고지서상의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6개월간 가정 에너지 개별 사용량을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하면 연 최대 7만 에코머니(서울시는 최대 15% 이상, 10만 에코머니)를 적립할 수 있다.

두 번째 서비스는 '녹색소비'를 실천할 경우 혜택을 받는 것이다. '친환경, 탄소발자국, 저탄소'와 관련된 마크가 있는 제품을 그린카드로 구매하면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1~24%)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친환경 제품은 유사 상품보다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세 번째 서비스는 '공공시설 할인' 혜택이다. 카드 사용 실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그린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주요 랜드마크와 공공아트센터, 자연 휴양림과 과학관, 그밖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에서 최대 100% 할인이 가능하다.



일상의 변화로 지키는 건강과 지구

걸을수록 마일리지가 쌓이는 프로그램도 있다. '걷기 마일리지'는 걸음 수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로,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하거나 할인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워크온' 앱을 통해 받고 싶은 혜택의 캠페인을 선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걷는 생활을 통해 건강과 환경, 그리고 기부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친환경 활동이다.

또 국립공원을 방문했다면 국립공원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린포인트' 제도를 활용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되가져가는 만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주차장,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하거나 사은품으로도 교환 가능하다. 적립 기준은 1g당 2포인트로 1일 최대 2,000포인트(1,000g)까지 적립된다.

텀블러와 화장품 공병을 활용해도 친환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용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화장품 공병의 경우, 반환 시에 포인트 적립과 새 제품 제공 등 다양한 친환경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친환경과 관련해 다양한 캠페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우리 주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혜택을 받고 환경도 지키면 어떨까.



일상생활 속 친환경 소비생활 수칙

☑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행동은 물건을 덜 사는 것이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자.

☑ 재사용과 재활용의 습관화

물건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가능한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습관을 만들자.

☑ 걷기의 생활화

가까운 곳은 꼭 걸어서 이동하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목적지가 같은 이웃이 있다면 함께 차를 타고 가자.

☑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선택

지속 가능한 나눔을 실행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자. 필요한 물건을 얻는 행동이 나눔과 기부로 이어진다.

☑ 친환경 제품 구매

새 물건을 살 때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 튼튼한 장바구니 챙기기

비닐봉지를 분해하는 데 약 500년이 걸린다고 한다. 재사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준비해 시장이나 마트 방문 시 챙겨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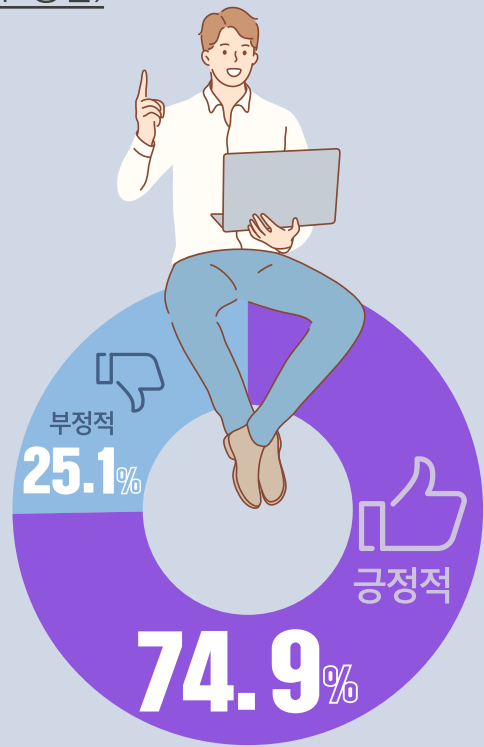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 호 월간 <교정>에 소개한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다가올 워드 코로나 시대, 변화한 직장인의 삶과 근무 방식

근무 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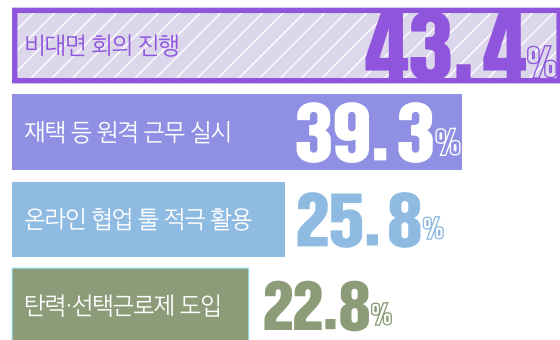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인의 삶과 근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일상이 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예방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는 기업과 직장인의 일하는 방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 다가올 워드 코로나 시대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한 일의 방식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꾼 코로나19는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 놓았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하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8%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복수 응답)으로는 '비대면 회의 진행'(43.4%)이 1위였다. 다음으로 '재택 등 원격 근무 실시'(39.3%), '온라인 협업 툴 적극 활용'(25.8%), '탄력·선택근로제 도입'(22.8%), '온라인 결재 활용'(21%)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74.9%)이라는 응답이 '부정적'(25.1%)이라는 답변보다 3배가량 많았다. 또한 기업 10곳 중 7곳(69.5%)은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변화한 근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통해 팬데믹으로 변화한 근무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재택근무 외에는 어떤 업무 형태가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까? 해당 질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유연근무제'(58.1%), '비대면 미팅, 면접 등 시행'(35.4%), '거점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 운영'(29.2%), '전사적 대면 행사 축소'(23.8%) 등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새로운 업무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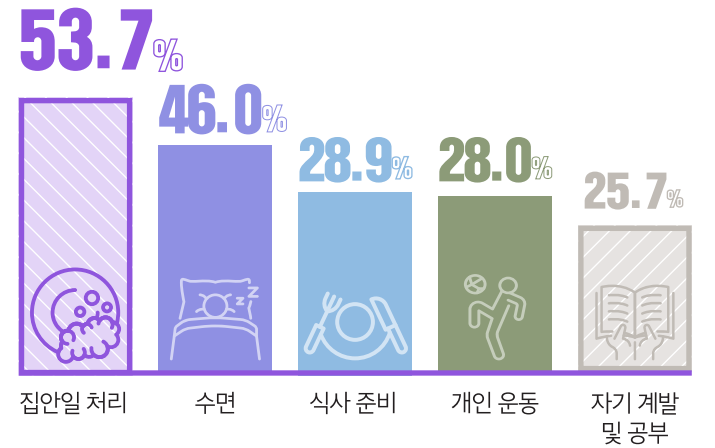
근무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는?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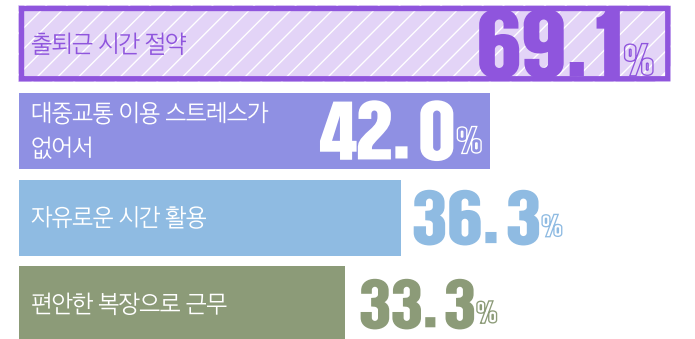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 희망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재택근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잡코리아가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7.3%)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유지되길 희망했다.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출퇴근 시간 절약'(69.1%)이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이용 스트레스가 없어서'(42.0%), '자유로운 시간 활용'(36.3%), '편안한 복장으로 근무'(33.3%)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재택 근무 출퇴근 시간 활용법'에 대한 조사(*복수 응답) 결과, '집안일 처리'(53.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고, 그다음으로 '수면'(46.0%), '식사 준비'(28.9%), '개인 운동'(28.0%), '자기 계발 및 공부'(25.7%)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반면 교정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정공무원들은 수용 관리로 인해 재택근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들은 교정시설로 유입되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택근무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 활용법 (복수 응답)



재택근무에 만족하는 이유는? (복수 응답)



번아웃 증후군 Check List!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근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직장인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디지털 과부하와 높아진 생산성 요구 등으로 인한 번아웃 증후군, 이른바 '코로나 번아웃'이 확산되고 있다. 교정공무원 역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번아웃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가 진단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

번아웃 자가진단테스트

- 쉽게 피로하고 짜증이 늘었다.
-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일이 재미없고 의욕이 없다.
-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 자주 한계를 느낀다.
- 이유 없이 슬프다.
-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 화를 참을 수 없다.
-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 만성피로, 두통, 소화 불량이 늘었다.
-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다.

- 전혀 아니다.1점
- 약간 그렇다.2점
- 그냥 그렇다.3점
- 많이 그렇다.4점
- 아주 그렇다.5점

※ 65점 이상이라면 번아웃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 우울증으로 번지기도 하므로 전문 의 진료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



또다시 잘못을 범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지혜롭고 조심스럽고, 무척 치밀한 사람조차 그러하다. 이는 불완전한 인간이 가진 숙명이자 속성이다. 인간이기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애써 외면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기까지 한다. 모두 다 자신의 잘못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하기 쉽고, 잘못된 길로, 삶의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쉽다. 반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잘못에서, 실패에서, 질곡에서 벗어나 배우고 성장하며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실패나 잘못이 오히려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벌을 짚기보다는 죄와 구원을 짚는 것이 좀 더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다. 인생의 승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모두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용서해야 한다

‘교정(矯正)’의 뜻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이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면 기꺼이 용서받아야 한다. 미국의 석학 조지 베일런트의 책 <행복의 완성>에는 믿기 어려운 용서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실화이다. 뉴욕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 한 14세 소년이 자신이 갱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래 소년을 총으로 죽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다. 죽은 소년의 부모는 증오하는 마음으로 교도소로 아들을



죽인 소년을 찾아간다. 그런데 증오로 시작된 면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죽은 소년의 부모는 소년이 출소할 때까지 계속 면회를 갔고, 소년이 출소하던 날 그를 집으로 초대한다. 일주일을 함께 보낸 후, 죽은 소년의 부모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전의 그 소년은 사라졌어. 자,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이제 내 아들은 사라졌고,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도 사라졌으니, 여기서 계속 살면 어떻게 하니? 여기엔 방도 있으니 네가 원한다면 나는 너를 양자로 들이고 싶구나.” 믿기 어려운 용서의 이야기이다. 죽은 소년의 부모는 죄를 지은 소년이 다른 사람이 됐기에 소년을 기꺼이 용서한 것이다.

때로 어떤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혹은 사회에서 용서받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내내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내일을 위해 잘못에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위태롭고 연약하게 하는 일일 뿐이다. 죄의식과 미움, 원망은 파괴적인 감정이며, 동시에 우리가 일어설 수 없게 하는 마음이다.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았다면 이제 그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상기할 때 용서하지 못할 잘못은 거의 없다. 타인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유독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인색한 사람도 있다. 어떤 잘못이 끝끝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무거운 짐이 내내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게 하고 방해한다. 하지만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자기 용서가 필요하다. 죄책감과 자기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자기 용서의 이유를 생각하고, 마음을 정돈할 시간도 필요하다. “이제 나를 용서할 수 있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자기반성,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도 명상이나 목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글쓰기나 봉사 활동 같은 가시적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기 용서가 충분해질 때까지 스스로 그 마음을 쌓아 나가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기 사랑

자기 용서가 단단해졌다면, 이제 자기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자기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 주머니에는 자기 사랑이 텅텅 비고 만다. 자기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다. 자기 사랑은 자존감과도 관련이 깊지만, 그보다는 정서적이면서도 따뜻한 자기 긍정이다. 월드 스타가 된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도 “자신을 사랑하라(Love yourself)”이다. 유엔 연설에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어제 실수했다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라고 했다. 또 그들의 노래 ‘아이돌(Idol)’에서는 “넌 내가 날 사랑하는 걸 막지 못해(You can't stop me lovin' myself)”라고 외친다. 이런 외침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치유를 줬다. 아직 자기 사랑이 서툴다면 얼마간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사랑해”, “OO야, 사랑해”라고 스스로없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 좀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바란다.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겨울철 화재 예방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서 전기장판과 난로, 히터 등 각종 난방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겨울은 연중 가장 높은 화재 발생률을 기록하는 계절인 만큼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중한 가족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재 예방 꿀팁을 소개한다.

자나 깨나 불조심 안전한 겨울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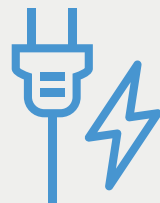
1



다시 꺼낸 난방장치 점검 먼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뒀던 난방장치는 곧바로 켜지 말고 상태를 먼저 점검하자.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파손된 전열기는 누설전류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접어서 보관한 전기장판은 열선이 꼬이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자. 날씨가 건조하면 먼지가 스파크를 일으키므로 수시로 먼지를 털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자.

2



콘센트 꽂기 전 소비 전력 확인

겨울철 난방장치는 소비 전력이 높아서 과열되기 쉽다. 다른 전자 제품과 함께 문어발식으로 연결해서 쓰면 과부하로 인한 합선이나 화재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파 방지용 열선은 누전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 사고가 특히 잦다. 전류 차단 기능과 센서가 있는 제품을 단독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고, 이물 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한다.

3



타기 쉬운 것은 '거리 두기'

전기난로나 히터 옆에 커튼을 치거나 빨래를 말리는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면 위험하다. 타기 쉬운 물건이나 가구는 난방장치와 최대한 거리를 둔다. 또 전기장판 위에는 라텍스 소재 이불을 깔지 않는 것이 좋다. 라텍스는 열 축적도가 높아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 시 화재 위험이 높다. 꼭 라텍스 침구를 써야 한다면 열이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이불을 깔아 준다.

4



외출 전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

집을 비우기 전에는 집 안 곳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전열기 전원은 반드시 끄고, 가스레인지와 인덕션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멀티 콘센트 주변도 꼼꼼히 확인하자. 작은 관심과 주의야말로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는 최고의 예방책이 된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 두는 습관을 기르자. 화재를 예방하고 대기 전력도 아낄 수 있다.

겨울철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아직 소화기가 없다면 이번 겨울엔 꼭 장만하자

모두가 잠든 사이 일어나는 화재가 가장 위험하다. 화재 감지기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울려 인명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기구로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비치하고, 경보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천장에 1개씩 설치한다.



예기치 못한 화재 시 침착하게 행동해요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더라도 화재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이 나면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119에도 곧바로 신고한다. 초기 진화가 여의치 않다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지만, 출입구까지 안전한 경로가 확보되고 화재 진압 후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자.



안전핀 뽑고 바람 등지고 빗자루로 쓸듯이 분사

소화기는 주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지만 의외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화기를 가져와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확인해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의 중심부로 향하도록 잡은 뒤 손잡이를 움켜쥘다. 그런 다음 빗자루로 쓸듯이 불길 위에 골고루 분사한다.



화재 원인을 찾고 유형별로 적절히 대처

일반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개 ABC소화기 하나로 진화가 가능하다. 목재나 의류 등에 불이 붙으면 물을 뿌려도 되지만 과열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차단기부터 찾아서 내리고 소화기를 분사한다. 기름이나 페인트 등 유류로 인한 화재에도 물을 뿌려선 안 된다. 젖은 모포로 공기를 차단하거나 소화기를 분사한다.



화목 보일러를 쓰고 있다면 소화기 항상 비치

화목 보일러는 사용자가 직접 연료를 다루기 때문에 화재에 더 취약하다. 불티가 많이 날려 목재 더미에 옮겨 붙는 화재도 잦다. 보일러실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하고 목재는 보일러와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실내에 설치할 경우 불연 자재로 시공한 바닥 위에 놓아 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타고 남은 재는 불씨를 확실하게 꺼트린 후 치운다.



방치하기 쉬운 소화기 수시로 점검해요

소화기에도 수명이 있다. 최대 수명은 10년인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 확인 검사를 받으면 3년 연장이 가능하다. 소화기 위에 달린 지시압력계의 녹색 부분에 바늘이 있으면 정상 작동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다면 가스를 보충하거나 아예 교체해야 한다. 용기 표면이나 안전핀에 변형·부식으로 인한 손상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지구를 살리고 통장도 살피우는 ‘그린 재테크’



지구를 아끼는 데 동참하는 그린 금융

최근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친환경 요소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포장의 82%를 나무, 사탕수수 등 식물성 기반 소재로 만들어 플라스틱 배출량을 대폭 줄인 생수 ‘저스트워터’의 2021년 3분기 국내 판매량이 4만 병을 넘어섰다고 하니 말이다. 저스트워터는 영화배우 윌 스미스와 그의 아들 제이든 스미스가 만든 친환경 생수 브랜드로, 국내에는 신세계푸드가 유통한다. 500mL 물 한 병이 3,360원으로 고가 생수 대비 양의 2배에 달하지만, “지구를 아끼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판매량이 대폭 늘었다. 저스트워터 4분기 목표 판매량은 10만 병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요즘은 지구를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소비뿐만이 아니다. 재테크 또한 친환경 요소를 갖춰야 한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구(舊) 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시설 투자에 나서야 한다. 주식은 물론이거니와 은행 예·적금에서도 그린 금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기왕 재테크하는 김에, 조금이라도 지구에 도움이 되는 쪽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스스로도 뿌듯하고, 수익도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도록 하자.

해양 쓰레기 감축 서약하면 연 2.5% 금리

일단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 보수적인 재테크족을 위해 그린 예·적금부터 찾아보도록 하자.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그린 예·적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으쓱(ESG) 통장과 우리으쓱 적금, KB국민은행의 KB맑은바다적금과 KB맑은하늘적금, 기업은행의 IBK늘푸른하늘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상품들은 추천하지 않는다.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쓰레기 수거 등 봉사 활동을 하면 0.8~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긴 하는데, 기본 이율이 0.8% 수준으로 기껏해야 1%대 후반의 금리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금리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교해서 다른 적금 상품 금리를 살펴보자면, 신한은행에서는 아무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모바일 전용 적금만 가입하면 연 금리가 1.8%다. 굳이 조건이 붙어 있는 그린 예·적금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환경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나은 이율을 받고 싶다면 Sh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 제로(Zero) 예·적금 상품을 추천한다. 이 상품은 해양 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적립식 예·적금으로, 해양 쓰레기 감축 서약을 작성하거나 쓰레기 수거 등 봉

사 활동을 하면 각각 우대금리로 연 0.1%와 연 0.2%를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연 최대 금리는 2.5%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세람저축은행은 ‘착한운전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이 적금은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준 금리 2.0%에 0.5~1.0%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친환경을 내걸고 있는 신용카드 중에서는 신한카드의 답에코 신용카드만 한 것이 없다. 쿠팡·티몬·위메프, 11번가·G마켓·옥션 등의 쇼핑 금액과 전기차 충전비, 대중교통비 사용액의 5%를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이와 동시에 답에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한생명의 ‘닐리리만보’라는 앱을 깔면 월 15회 이상 1만 보를 걸었을 때 5,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주식 투자 무섭다면 탄소배출권이나 니켈 투자는 어떨까

그래도 ‘그린 재테크’의 꽃은 투자다. 주식 투자가 무섭다면 탄소배출권 상장지수펀드(ETF)나 니켈 ETF 같은 친환경 요소가 강한 상품 ETF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일단 각 기업에 탄소배출 허용량을 할당했고,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려면 배출권을 사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제도다. 주요 나라

대부분이 탄소제로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만큼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다. 때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탄소배출권 가격 자체는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 대부분이 2050년에는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배출 시장은 주식보다는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 탄소배출권 ETF는 지난 9월 국내에 처음 상장됐다.

니켈은 전기차 2차전지의 필수 재료다. 채굴이 어렵고,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보니 가격이 뛰는 추세다. 9월 말 이후 주식시장은 부진한데,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은 비교적 양호했다. 전기차는 확실히 대세가 됐다. 니켈 가격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판단이 어렵다면 각 자산운용사에서 내놓은 그린뉴딜 펀드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그린뉴딜 펀드는 증권사나 은행 객장에서 살 수 있고, ETF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HTS에서 직접 살 수 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은 올해 들어 10월 14일까지의 수익률이 34.25%에 달한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자의 관심, 지구를 위한다는 철학 아래 출렁임은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는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는 투자처라고 본다.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인용구의 주인공은 바로 NBA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멘션의 일부다. 그리고 그가 말한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은 바로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르브론 제임스가 <오징어 게임>을 어떻게 봤느냐는 것이 아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오징어 게임>에 반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르브론 제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은 둘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솔직히 과언이다. 하지만 과언처럼 들리지 않는 과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온 초록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우산 모양의 달고나를 훔으며 즐거워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소개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뭔가 세상이 잘못된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지난 추석 연휴에 공개된, 한국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높은 것일까?



게임의 법칙

<오징어 게임>에는 제목 그대로 ‘오징어 게임’이 등장한다. 그 외에도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 놀이’, ‘달고나 뽑기’ 등 지금 3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유년 시절에 한 번쯤 해 봤을 법한 놀이가 대거 등장한다. 이 놀이에 참여하는 건 456명의 지원자인데, 대체로 인생이 절박하게 몰려 일확천금의 행운 외에는 삶의 방도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다. 그런 그들의 머리 위로 5만 원 지폐를 가득 채울 돼지 저금통이 떠오른다. 탈락자 1인당 1억 원씩의 상금이 채워진다. 여기서 탈락이란 단순히 게임에 참여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

기회가 사라지는 것, 즉 죽음이다. 그야말로 목숨을 판돈으로 건 일확천금의 피 칠갑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된 개인이 내몰린 현실을 풍자하는 자본주의 우화인 셈이다. 하지만 심각하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사로잡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끔찍한 현실을 풍자한 게임이다. 드라마를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 이후로 달고나는 전 세계적 인기 상품이 됐다.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오징어 게임>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국자에 설탕을 녹여 달고나를 만들고, 쪽자로 낸 모양을 떼겠다고 하며 영화 속 인물처럼 혀로 달고나를 훔아 대는 풍경도 이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달고나 세트 주문이 밀려들고, 온라인상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유년 시절에 했던 놀이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오락이다. 어른에게 놀이는 공짜의 세계가 아니다. 어른이란 돈을 써야 놀 수 있는 나이다. <오징어 게임>은 게임의 룰이 단순할수록 실패의 가혹함이 더해진다는 역설을 잘 이해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그 가혹함을 간접 체험한 이들은 안전한 현실에서 작품 속 게임에 몰입하고자 한다. 익숙하면 익숙한 대로, 낯설면 낯선 대로 이 단순 명료한 놀이를 즐기면서 현실 감각을 지우는 재미를 즐긴다. 이 지난한 팬데믹 시대에 가상 세계에서 찾아온 놀이에 탐닉하는 전 세계 인류의 풍경은 역설적이지만 그 자체로 납득이 된다. 다들 놀이가 필요한 시대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유희가 절실하다.



로컬이 아닌 글로벌, 넷플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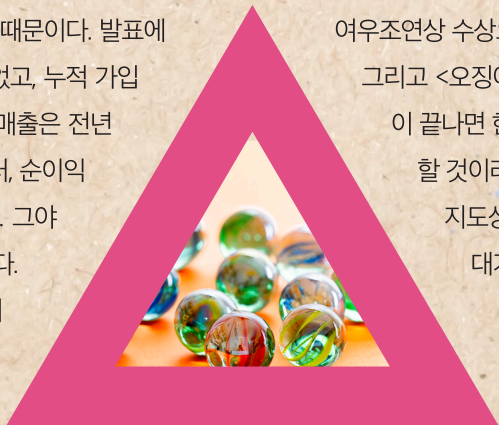
지난 10월 19일, 넷플릭스의 최고경영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싱글벙글한 얼굴로 등장했다.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였다.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만연한 건 넷플릭스 3분기 실적이 기록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438만 명 늘었고, 누적 가입자 수가 총 2억 136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상승한 74억 8,000달러, 순이익은 두 배로 급증한 14억 5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의 수혜를 톡톡히 본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9월 17일에 공개된 이후로 4주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억 4,200만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 가입이 가능한 전 세계 94개국에서 스트리밍 수 1위를 차지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5년 만에 가장 낮았던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팬데믹의 끝과 함께 성장도 끝일 거라 전망한 넷플릭스가 그야말로 메가 히트 콘텐츠가 된 <오징어 게임>과 함께 ‘떡상’한 것이다. 결국 인기 있는 콘텐츠 하나가 플랫폼의 가치까지 띄워 올린다는 것을 <오징어 게임>이 증명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대단한 흥행 수혜를 작품 기획이나 제작에 관여한 이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인한 수익은 온전히 넷플릭스의 것이다.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한 이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없다.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작품 제작이 가능했고,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결정한 넷플릭스가 수익을 거두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소유하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일 것이다. 물론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고민이 증발되지만 않는다면 산업적으로 긍정적 결실을 거둘 가능성도 있는 법이다.

슈퍼 콘텐츠 K의 시대

지난 11월 3일에 개봉한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이터널스>에는 잘 알려진 것처럼 배우 마동석이 출연한다. 한국 관객 입장에서는 마블 영화, 즉 MCU에서 괴물의 ‘퀵방망이(퀴통이)’를 찰지게 날리는 마동석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갑고 신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터널스>에는 한국 관객에게 하나 더 반갑고 신기할 거리가 있다. 바로 BTS가 대사로 언급되는 것. 그리고 BTS의 노래 ‘친구’가 영화음악으로 쓰인 것. 물론 BTS가 출연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관객이

기다리는 MCU 영화에서 BTS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정말 ‘국뽕’이 차오르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K의 시대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윤여정의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2년 연속 한국인 오스카 수상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유행을 이끌었다. 팬데믹이 끝나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해외 관광객 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허무맹랑하지 않다. 더 이상 한국이 지도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K팝에 열광하는 해외의 젊은 팬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고, 한국을 알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는 것도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고,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선 문화 강국이 됐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런 부심은 한때 우리가 ‘팝이라 부르며 추켜세웠던 일본 대중문화의 현실을 보며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솔직히 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사랑받게 된 것인지 아는 이는 누구도 없다. 아무도 모른다. 영원히 모를 것이다. 다만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지금은 분명 K의 시대다. 한때 우리 스스로가 조롱했던 ‘국뽕’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끓어 넘쳐서 어리둥절할 정도다. 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끓어 넘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몰라도 그것이 공통적으로 기성 콘텐츠로 분류되는 것을 밀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신선한 무언가로 받아들여지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류라는 멋쩍은 단어가 등장한 지 20여 년 만에 K팝이, K무비가,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사로잡는 영향력의 시대에서 K콘텐츠는 더 이상 변방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다. 더 이상 세계를 향해 나아가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증명해야 할 때라는 현실감이 필요하다. K콘텐츠를 향한 뜨거운 열광이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도 K콘텐츠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적어도 게임은 계속돼야 하니까.



Health Infographics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관절, 어깨 건강 이야기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어깨관절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해 우리 몸에서 운동 범위가 가장 넓은 신체 부위로, 그만큼 과도하게 사용하면 외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 정의** 어깨관절을 둘러싼 조직의 염증(관절낭염)과 유착
- 원인** 특별한 원인 없음, 주로 50대 이후 발병
- 증상** 만성적 어깨관절 통증과 운동장애, 운동 범위 감소
- 치료** 운동 및 온열 치료, 수압 팽창술 등 시술, 관절낭 유리술 등의 수술

석회성건염

- 정의** 칼슘 퇴적물이 힘줄에 침윤되는 '석회화'를 동반한 건의 염증
- 원인** 힘줄의 퇴행성 변화, 미세 혈류 감소 등
- 증상** 팔이 빠지거나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통증
- 치료** 스트레칭 등 물리치료,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및 체외 충격파 시술

회전근개증후군

- 정의**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
- 원인** 손을 잡고 넘어지는 외상, 견봉과의 마찰-압력 증가, 어깨 과사용 등
- 증상** 팔을 위로 올리거나 뒤로 뺄 때 통증, 근력 약화, 어깨 운동 범위 감소
- 치료** 생활 습관 개선,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주사 치료 등

어깨충돌증후군

- 정의** 어깨 힘줄(회전근개)과 견봉 뼈의 충돌로 인한 염증
- 원인** 배드민턴처럼 팔을 위로 드는 동작을 많이 하는 환경적 요인 등
- 증상** 팔을 높이 들어 올릴 때의 통증, 어깨를 돌릴 때 삐걱삐걱하는 연발음
- 치료** 스트레칭을 통한 운동 범위 회복, 스테로이드 주사, 국소마취제 주입 등

Healthy Guide

어깨 쪽 퍼면 몸은 튼튼, 마음은 당당

구부정한 자세는 근육을 쉬지 못하게 해 뭉치거나 딱딱하게 만들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 반면 어깨가 앞으로 몰리지 않고 바르게 퍼질 때 우리의 몸이 목과 등뼈, 골반까지 정렬된다. 건강하고 당당하게, 말 그대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매력에 넘친다.

어깨 질환 예방하는 올바른 자세



01 장시간 고정 자세 어깨 건강 위협해요

1시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 휴식을 해요.



02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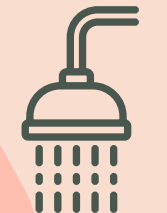
스마트폰 과사용은 어깨 통증의 주범! 척추에도 안 좋아요.

꾸준한 운동과 마사지 요법



03 하루 30분 유산소운동

운동 전후 워밍업 필수! 충분한 유산소운동으로 관절 가동력을 높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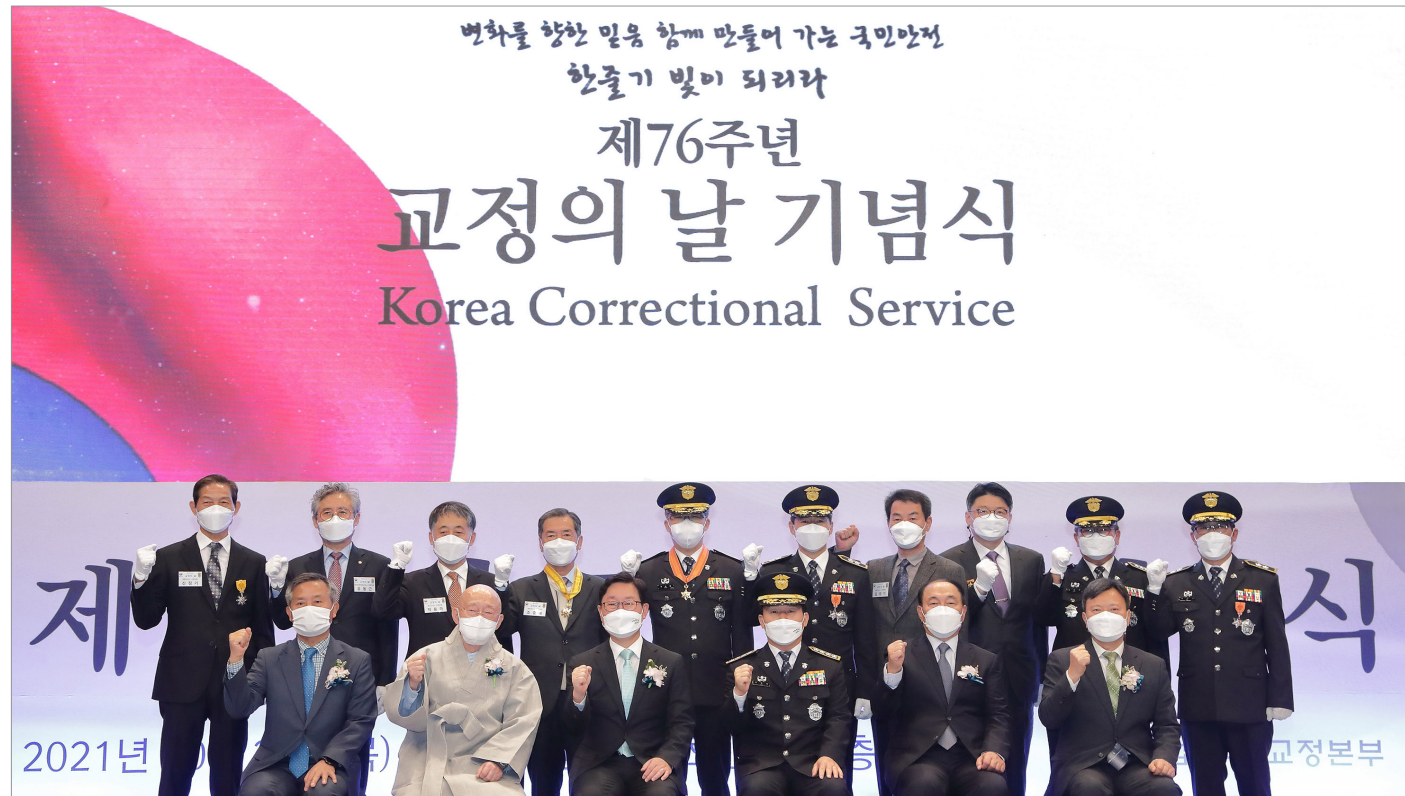
04 혈액순환이 중요해요

온(溫) 마사지와 온수 샤워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혈류 촉진, 통증을 완화해요.

어깨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생활 습관

- 어깨를 사용하기 전에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워밍업해요.
- 운동을 마칠 때에도 회복 운동으로 관절을 보호해요.
-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지 말고 가슴을 쭉 펴요.
- 고개를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수시로 어깨 근육을 풀어 줘요.
- 쇄골 부분을 지압하며 어깨의 혈액순환을 도와요.
- 칼슘이 함유된 식단으로 관절과 뼈를 강화해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76주년을 맞았다. 2002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교정의 날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의미를 새기는 뜻깊은 날로, 매년 10월 28일마다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 규모는 최소화했지만 교정의 날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안전과 의미를 모두 충족하는 기념식이었다.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교정행정 당부

법무부는 10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국 콘텐츠진흥원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스튜디오에서 ‘제76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규모를 최소화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유병철 교정본부장, 황우중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송영삼 교정동우회 부회장 및 교정참여 인사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행사의 포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인간의 선한 의지를 믿고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진다”며,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 내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단합된 힘으로 빠르게 수용시설 정상화를 이루어 낸 헌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사회 안전의 주역인 교정공무원에게 사람 존중을 바탕으로 포용적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로 훈훈해진 분위기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단상에 오르면서 더욱 화기애애해졌다.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단순히 국가의 형벌권을 집행하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4개 지방청, 53개 교정시설, 1개의 민영교도소에서 1만 6,513명의 직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용자의 교육,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의료처우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문화·현대화된 인권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의 변화 의지를 높이 샀다. 이어 “27년의 교도소 생활이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소중하고 진심이 담긴 말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권을 바탕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교정의 날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 병행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는 자리인 만큼 정부 포상의 시간도 마련됐다.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수받은 안동교도소 조중래 교정위원은 1993년부터 교정참여 인사로 활동을 시작해 28년간 모범수용자 자녀에게 연 2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출소자 직접 고용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왔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교정본부 승격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조직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 신정기(창원교도소)·박용하(부산구치소)·김영지(장흥교도소)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총 3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무부 교정본부 UCC/영상 공모전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의 모습’을 표현한 배유미 씨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가졌다.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이어졌다. 제50회 교정작품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도 선보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익힌 예술적 역량과 솜씨로 빚어낸 공예·문예작품 356점을 비롯해 UCC/영상 공모전 수상작이 상영됐다. 교정 홍보대사인 국악인 하윤주 씨는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나라’ 등 축하 공연을 통해 수용자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주는 교정공무원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교정의 날 최초로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 법무부 TV)을 통해 기념식 전 과정을 국민에게 생중계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 인사들을 줌(zoom)으로 연결, 비대면 방식으로 박범계 장관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는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용자 886명을 가석방해 진정한 교정교화와 사회 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


	세
	상
	에
것	
은	당
	연
없	한
다	


 “삐이- 삐이-”. 나에게 생각지 못한 ‘이명(耳鳴)’이 찾아왔다. 한가한 주말 아침이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사다리차 소리가 났다. 아내에게 “우리 아파트에 누가 이사 오나 봐? 한동안 조용했는데...”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다. “지금 사다리 올라가는 소리 안 들려?” 했더니 “아침부터 무슨 생똥맞은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라며 황당해 한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세상의 아침은 너무나 고요했다. 다시 집중해 들어 보니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 바로 ‘이명’이라는 불청객이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50세를 ‘반백 살’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하기에 따라 웃었던 기억이 있다. 50세와 반백 살은 같은 나이를 표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느낌이 난다. 웬지 더 오래 산 느낌일까? 난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이명이라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득 어머니께서 이명으로 약을 드셨던 것이 생각나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다. 어머니도 지금의 내 나이 즈음해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고쳐 보려 음악을 크게 들어 보고, 귀가 아프도록 잡아당기거나 비벼 보기도 하고, 약도 먹어 봤는데 이명에 신경 쓰면 쓸수록 스트레스만 커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친구처럼 산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나는 이명이 ‘뚜우~’ 하고 들리는데 ‘뚜우~’ 소리가 나면, 몸이 나에게 지금 힘드니 영양 보충 좀 하라고 알려 주는 반가운 소리로 알고, 맛있는 것 먹고 쉬면 어느새 좋아지더라. 그러니 너도 친구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어머니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명이라는 낯선 친구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일단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의 권유로 청력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고음역대가 안 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고, 그럴 나이가 됐으니 이제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였다. 나는 아직 젊다고만 생각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시간이 아닐까? 특별히 누구에게만 더 빠르고 또는 더 느리게 가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그동안 나는 나를 건강하고, 아직까지는 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느새 아이들도 많이 컸고, 얼굴에 주름살도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받아들이자. 그리고 받아들인 김에 진정한 나의 오랜 숙적인 혈압까지 받아주자’라고 결심했다. 그래서 내과에도 방문해 혈압약 처방을 받으려다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심장초음파를 마치고 결과를 설명해 주던 의사가 나에게 부정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부분까지 조절해 주는 혈압약으로 처방해야 한다며, 의사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같은 분은 옛날 같았으면 현재 나이쯤 돼서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래 살 것처럼 몸을 함부로 확대하지 마세요.”

 나는 ‘당연히’라는 단어가 ‘킱’ 하고 목에 걸렸다. “특별히 암이라든가 큰 사고만 겪지 않는다면 적어도 8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나요?”라고 했더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사람들은 당연히 수명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대 의학 기술과 약이 없다면 지금 죽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 거르지 마시고, 체중 관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라고 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수명은 사라질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라고 경고했다. 그러고는 죽을 때 깨달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 깨달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너무나 황당했다. 의사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도사 같은 말을 하나 싶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용자에게 “당연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하루는 수용동 근무를 하는데, 수용동 팀장님께서 “○○방 ○○○번은 배식할 때 주의하라”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 배식 때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이게 국이야, 물이야? 건더기 하나 없고, 국이면 당연히 건더기가 있어야지 이게 뭐냐? 배식도 건성으로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야?”라며 답변할 틈도 주지 않고, 수용동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계속 소리를 질렀다.

 한참을 들어주다 잠시 주춤하기에, 알았으니 내 얘기도 들어보라 했다. “지금 음식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밥 한 그릇의 쌀도 어느 농부가 논에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줬고, 그 씨는 먼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아 자랐어요. 농부는 이를 땀으로 보살피고 수확했고, 그 누군가가 그것을 취사장으로 옮겼으며, 취사장에서는 뜨거운 불을 다루며 조리했고, 도우미의 배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의 땀과 정성으로 여기 있는 것이죠. 감사할 일 아닌가요? 그러니 음식을 대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어른이라면 음식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했더니 결국 사과하며 요구 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평소 밖에서도 밥을 많이 먹는 편인데, 밥이 너무 적어 배가 고프니 앞으로 밥이라도 좀 더 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른이면 어른답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배식하고 남는 밥이 있으면 더 줄 것이니 도우미에게 욕박지르지 말고, 잘 대해 주세요”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나의 생명도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고, 입고 있는 옷이며, 지금 누리고 있는 삶도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보니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마음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백 년도 못 살면서 천 년을 살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처럼 행동한다. 마치 눈앞의 미끼만 보고 바늘은 보지 못하는 물고기처럼 말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오로지 감사할 것뿐이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철	없	던	모	습	을	반	성	하	고	
평	생	속	죄	하	며	살	것	습	니	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이 가방을 제작하는 작업 거실에 출역 중인 허OO 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로 인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할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속죄하며 용서를 구해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7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이후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유가족들에 대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도는 저의 일상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일은 제가 군대를 전역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선배들과 어울려 타 지역의 한 술집에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시비가 붙게 됐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막내였고 누구보다 씩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 반성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려 보니, 그 당시 아무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한 저 자신에게 아주 많이 화도 나고 후회도 됩니다. 무엇보다 저의 철없던 모습을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공범 중에서 비록 제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선배를 말리지 못한 점과 폭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죄를 뉘우치고 새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자퇴였으나, 밤낮으로 공부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자체 직업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용접훈련생으로 선발돼 용접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교도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새사람으로 태어나고자 합니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과 그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제 잘못을 회개하며 눈물로써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한순간 잘못으로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에게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인 저를 지켜봐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셔도 제 삶이 다할 때까지 마음에 새겨 두고 끝없이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진실한 마음과 진심이 피해자분과 유가족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 글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부모님께도 용서를 구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고 7년이란 시간 동안 죄인의 아버지, 어머니란 이유만으로 마음 편히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마음고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뒤늦은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①

인치견*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1. 출소자의 정의
 - 2.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이해
 - 3. 관계변수에 관한 정의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1.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구성 요소
 - 2. 연구 결과
- V. 논의 및 결론
 - 1. 연구의 논의
 - 2. 교정사회복지 실천
 -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서울남부구치소 교감(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Tel: 010-8289-9519 E-mail: mail24@korea.kr)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들의 사회복귀경험을 탐색하고,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게 되는 낙인, 차별,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며 회복해 가는가에 대하여, 교정시설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 중에서 출소 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 12명을 먼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일부 대상자는 중간에 인터뷰를 포기하거나 연구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6명을 선정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의 본질적 의미로 간주하는 4개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내었다. 첫째,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다. 둘째,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다. 셋째,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다. 넷째,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가지 구성요소에서 더욱 세분화하여 13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출소자들은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운데 가족이 해체되거나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으며,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안정적인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미약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안에 갇혀 있는 낙인, 차별, 편견에서 벗어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소양을 갖춘 교정 전문 실천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나아가 출소자에 대한 이해와 교정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입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단어 : 출소자, 사회복귀경험, 낙인, 차별, 편견, 회복탄력성,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

I. 서론

형벌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의 준거가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조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사회복귀에 성공하는 것이 교정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의 출소 전후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방안 및 지원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출소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보다는 주로 사회복귀를 위한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고 하겠다.

사회복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출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일반시민들과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때 일반시민들이 출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낙인과 차별,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출소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출소자들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되고, 사회복귀 취약계층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그들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면에 대한 사회복지적 실천과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에서 다시 사회로 복귀한 출소자들이 사회, 특히 사회적응과 직장 생활 등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식들을 연구 대상자인 출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낙인과 차별, 그리고 편견과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문제점과 극복방안 등을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정시설 출소자들이 사회에서 부딪히게 되는 사회복귀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인성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2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출소한 후인 2019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12명의 출소자 가운데 6명은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층면접에 대한 호응도가 미비하여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6명이 끝까지 면접에 응함으로써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출소자의 의미

출소자(Discharged Prisoners)란 구치소 및 교도소와 치료감호소에 수감된 후 해당 처분을 모두 종료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자신의 형기를 마치거나 또는 종료하기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사면 등에 의하여 교정시설에서 석방되는 자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하에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이 출소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형벌이 종료되어 사회인이 된 경우이고, 둘째는 형벌이 종료되기 전에 사회 내 처우를 조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사회인이 되는 경우이다.

출소자들이 출소 후 당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자들은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보화로 급변하는 현실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당황해하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수용자들은 출소일이 가까워지면서 앞으로의 생활계획을 세우고 출소 후 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지만, 막상 출소하고 첫발을 내딛는 사회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수용자들은 출소하면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막상 사회에서는 이들을 전과자라고 낙인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출소자들은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특히 출소자가 개인적으로 원조해주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무의탁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매우 힘들다. 넷째, 출소자의 복지증진은 출소자 자신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익적 이익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이나 형사정책 혹은 교정학의 중요한 한 분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소자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출소자에 대한 공식적인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2.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이해

1) 사회복귀제도

사회복귀제도는 교정시설로부터 출소한 수용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하여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능하는 지표로서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그동안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하여 직업훈련, 학교교육, 인성교육 및 종교활동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출소자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출소자의 취업 및 창업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출소자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재범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회복귀제도의 연혁

우선 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16세기부터 영국의 브라이드웰 감옥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치장 등 근대적 의미의 감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영국에서 18세기 말에 존 하워드(John Howard)를 중심으로 하는 감옥개량가들이 당시의 비참했던 감옥 상황을 참관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존 하워드의 감옥개량운동은 미국에 큰 영향을 미쳐 19세기 초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독거제가 확립되었으며,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오반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선의 의미를 넘어 사회복귀의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교정행정 실무자들은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규모의 공공사업장에 교정시설의 수용자 인력을 투입하면서 범죄인의 갱생보호와 사회복귀

이념이 1920년대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시대까지 5형제도(笞, 杖, 徒, 流, 死)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였으며, 전옥서를 중심으로 하는 감옥제도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조선 말 개화파의 등장으로 1894년의 감옥규칙 제정과 같은 행형의 근대적 수용자 처우 개념이 싹트기 시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를 맞아 주체적인 감옥개량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1948년 3월 31일 우량수형자 석방령이 공포·시행되어 선시제도(Good time system)를 실시하였는데, 사회복귀 개념이 반영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자력갱생 의지를 촉진하여 수용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수용자의 사회복귀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1950년 우리 행형법이 제정된 후 1953년까지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정행정에 사회복귀사상이 명확하게 등장하게 된 것은 ‘행형법’이 제정된 1950년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형법 제1조에서 “본 법은 징역형(懲役刑), 금고형(禁錮刑), 노역장유치(勞務場留置), 구류형(拘留刑)을 받은 자를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구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정행정의 목적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형법은 격리의 과학화, 처우의 개별화, 사회화 및 사회로부터의 격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정의 사회화가 주는 의미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1950년에 제정된 행형법은 2007년 12월에 전면 개정되었고, 법의 명칭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전면 개정된 형집행법 제1조에서도 행형법과 유사하게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

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복귀를 교정행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3) 교정시설 사회복귀제도의 유형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귀제도에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다양한 처우와 프로그램이 포함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인성교육,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종교활동과 중간처우도 포함될 것이다. 그 외 교도작업과 직업훈련도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속한다. 모든 수용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7조에 따라 강제노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교정시설에서는 이를 교도작업이라 한다. 교도작업은 수용자에게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일하는 습관을 형성시켜 출소 후 사회복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직업훈련도 출소 후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사회복귀제도에 속한다.

(1) 교육 프로그램

교정교육 중 학과교육은 구금으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된 수용자들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제도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으로 초등과정에서부터 중등, 고등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반을 편성 운영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학학위나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교정시설 내에서 이수하여 학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 등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수용자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학과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사회 및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 인성 교육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종전의 정신교육에서 발전한 것이다. 수용자에 대한 정신교육은 수용자의 건전한 민주주의와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개과천신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과거에는 새마을 정신교육을 계승한 형태로 소내 정신교육을 실시해 오다가, 2008년부터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수용자 인성교육’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감수성 훈련, 인간관계 회복, 도덕성 회복, 시민의식 및 준법정신 함양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켜 실시하여 왔다. 이후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 심화시켜 2015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형기 등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70~120시간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중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수형자 종교활동

종교는 수형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마음에 평정을 갖게 하여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6세기 근대 감옥의 태동은 ‘기도와 노동’을 중시했던 수도원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수용자들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옥 내에서 회오 반성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감옥개량가로서 감옥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존 하워드 는 수용자의 종교활동을 강조하여 감옥 내에 성경을 비치하도록 하고 독거실에 수용하여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존 하워드의 사상은 미국 감옥 제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790년 펜실베이니아 주 월넛감옥에서 처음으로 독거제가 실시되었고, 각 수용자에게 기독교에 바탕을 둔 종교활동이 권장되었다.

수형자의 종교활동은 이러한 초창기를 거쳐 응모 모델, 치료모델, 정의모델, 재통합모델 및 가장 최근의 회복적 사법모델에 이르기까지 수용자의 교화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자신의 종파에 따라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종파별로 종교집회 등 각종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부의 종교위원들과 자

매결연을 통하여 종교상담 및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

(4) 가족관계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는 수형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가족의 정을 나누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소원해질 수 있는 가족관계를 회복해 주기 위한 교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수용자에게 어린 자녀 또는 연로한 부모가 있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소년수,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서 가족으로 부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 가족관계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시행하는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다.

(5)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범죄성이 강한 수용자의 문제행동을 경감시켜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상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용자를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11년 10월 서울남부교도소에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포항교도소, 밀양구치소, 청주교도소, 군산교도소 등에 각각 심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정본부 산하기관으로서 일선 교정시설에 대한 중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4개 지방교정청의 각 청별로 심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사범 뿐만 아니라 중독사범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2016년 11월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하여 ‘심리치료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계속해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6)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교도작업이란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형기 중 부과하는 일체의 작업으로써 형법 제67조에 따라 징역형의 수형자에게 강제되는 정역을 말하는 것이다. 즉 범죄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쳐 징역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서 의무적으로 정역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데 형집행법 제65조는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여 교도작업의 본질이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대부분 노동을 싫어하거나 태만히 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교도소에서 작업을 통하여 노동의 의미를 일깨우고 노동의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사회복귀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수용자들이 출소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술 및 기능을 가르치고, 또 관련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출소 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직업훈련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재 전국 31개 교정시설에 공공직업훈련소를 지정하고, 자동차 정비, 건축, 전기, 용접, 조리 분야 등 74개 직종에 달하는 직업능력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기능장 및 산업기사 전문 과정을 신설하여 고급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 3D 프린팅, 컴퓨터응용가공 등 첨단기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가 형기 동안 작업, 직업훈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출소 후 취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각 교정시설에서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용자 취업·창업 교육 등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석방 후 안정적인 생활과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7) 중간처우 제도

수용자가 장기간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하게 되면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수용자가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간처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의 중간 형태 내지 결합 형태로서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를 지역사회와 연계시켜 사회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양교도소, 천안교도소 등에서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완충 기능을 하는 곳으로 중장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 기간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시설이다. 만기 또는 가석방이 임박한 수용자를 석방하기 전까지 거주하게 하면서 처우하는 제도인 것이다. 중간처우 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자치활동, 수용자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개별처우, 자립능력 향상 등이다. 그리고 중간처우시설의 기준은 사회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통 독립시설 또는 교정시설 구외에 위치하고 개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일반 주택형 또는 수련시설형으로 설치하며 최소한의 보안설비를 갖추는 것 등이 특징이다.

(8) 갱생보호사업활동

갱생보호사업이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원호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이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가족관계의 단절,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출소 후 거주할 곳이 없는 등 사회정착이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보호적 측면에서 갱생보호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 변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3조에 의거,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법인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독하에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각 지방감찰청 소재지에 15개 지부와 1개 센터, 7개 지소, 그 외 8개의 민간갱생보호 허가법인이 있다.

(9)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관계

형집행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교정행정의 목적인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이는 장기적 측면에서 본 것이고, 단기적 측면인 행형의 단계에서 보더라도 두 목표는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자들은 출소 후 2~3개월 사이에 유혹과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흔히 ‘재범 부랑기간’이라고 한다. 또한 보편적으로 1차적 범죄행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 있으나, 2차적 범죄행위는 낙인이론에 따른 전과자라는 사회의 낙인화에 따라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게 되므로 범죄경력, 즉 전과가 많을수록 낙인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되고, 따라서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1차적 범죄라 하더라도 우발범, 격정범이 많을 수 있고, 그 후에 개과천선하여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고 싶지만, 사회의 조소와 냉대 그리고 전과자란 낙인 때문에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쉽게 다시 죄를 범하기 마련이다.



교정 NEWS

교정 11월호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일시·장소
 10. 7.(목) 16:00, 교정본부 회의실

개최 방식
 비대면 온나라 영상회의

참석 대상
 73명

-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교정·보안정책단장, 교정본부 각 과장 등
- 지방교정청장(4명), 교정연수부장, 교정기관장 (54명, 소망교도소 포함)

회의 주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용처우 방안

법무부 교정홍보대사 위촉식



제안 대상
 10. 20.(수) 10:00,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 대상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교정기획과장

위촉 대상 국악인 하윤주

주요 내용 위촉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제50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개최 기간
 10. 28.(목)~11. 10.(수), 2주간

전시 작품
 총 84점(수용자 공예작품 및 문예작품, 직원 작품)

전시 공간
 교정작품 전시회 홈페이지
 (PC 및 모바일 동시 구현)



QR코드 스캔 시
 교정작품 전시회
 홈페이지로 이동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10. 25.(월) 14:00, 안양교도소

방문자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

주요 내용

-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및 방역 실태 점검
- 노후 시설 및 직업훈련 점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애로 사항 청취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제50회 교정작품 전시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제50회 교정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356점이 출품됐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전시로 진행됐다. 전시 작품은 온라인을 통해 가상현실(VR) 관람이 가능하며, 교정작품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법무부차관 정책현장 방문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10월 1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감염병 대응 실태 및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5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노후 건축물 실태 및 재건축 추진 현황,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 박범계 장관은 "철저한 시설 점검과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고,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직원 인터뷰 실시

수원구치소 유인종 교위는 10월 27일 <경인일보>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번 인터뷰는 <경인일보>에서 제76주년을 맞이한 교정의 날을 기념하는 기획 기사 작성을 위해 진행됐다. 유인종 교위는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화가의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멋진 교도관을 주제로 인터뷰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임경민
직원 건강검진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사 2층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지침을 지키며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서울지방교정청장은 10월 12일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수칙 이행 실태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신경우 청장은 신입사 격리 수용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인천구치소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보부장 정책현장 방문

유병철 교정보부장은 10월 18일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정책현장 및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했으며,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유병철 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근무 자세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으며, 조적 종목에 출전한 수용자가 금상을 수상했다. 김도형 소장은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결실을 맺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전태수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10월 26일 '2021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규 교정위원은

5명이 위촉됐으며, 교정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내 유능한 인사들로 구성했다. 신동윤 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수용자의 인권 향상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10월 12일 소속 직원 손현웅 교감의 '붓길따라' 서예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손현웅 교감은 총 130여 점의 시를 서예작품으로 6개월간 제작했으며, 직원 및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민원실과 수용동에 전시했다. 최진규 소장은 "동료들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써 내리간 시들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 심의관 방문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 심의관이 10월 1일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조창상 심의관은 수용자 취사장, 신입 수용동 및 혈액투석실 등 교정현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의료 시설 확대와 수용 거실의 적정 인원 수용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공감을 표현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직원 건강검진 실시

춘천교도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청사 2층 교육실에서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했으며, 야간 근무자 특수검진도 동시에 진행했다. 건강검진을 받은 직원은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질병이

조기 치료가 가능해 다행이며, 이번 계기로 좀 더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10월 12일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의 이동 헌혈 차량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강릉교도소는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 김경화 소장은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많은 직원이 캠페인 및 표어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해 스스로 경계하고 근절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교정공무원 직업 강의 실시

영월교도소는 10월 22일에 영월 봉래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는 외부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김현우 소장은 "학생들이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개인보호구 착용 훈련 실시

강원북부교도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 직원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직원 건강검진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0월 6일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직원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통해 선정한 한강수병원 검진센터의 출장 방문으로 진행됐으며, 건강검진 대상 직원의 83%가 검진을 받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소망교도소 / 9직급 전성렬
도서 기증 행사 실시

소망교도소는 10월 7일 여주시 책나루터에 도서 기증을 실시했다. 수용자 폐기 도서를 활용한 기증 행사는 2019년 9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증한 도서는 1,020권을 달성하고 있으며, 소망교도소는 앞으로도 기증 행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적극행정 사례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10월 20일 적극행정의 신속한 확산 및 전 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실시됐으며, 공직자로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기관 대청소 실시

대구교도소는 10월 6일 기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신축 시설로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후화된 현 시설의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직원 건강검진 실시

부산구치소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직원들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과 직원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강수병원과 협약해 진행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콜레스테롤 4중 검사 및 초음파 무료 검진을 추가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수용자 취창업 교육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0월 6일, 7일, 12일 총 3일에 걸쳐 수용자를 대상으로 취창업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내부 강사(교감 신삼영, 교사 전운환)가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취창업 지원 제도 안내, 직업 윤리교육,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준비 등으로 구성됐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교정행정발전 협의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10월 14일 창원교 교정행정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정의 날 기념품 선정'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협의회에 앞서 실시된 직원들의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교정의 날 기념품으로 선정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10월 19일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기념하고 헌혈을 통한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박수연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포항교도소는 10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협조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각종 대형 사고 및 질병 등으로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출생·고령화 등 혈액 자원 감소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진주교도소는 10월 19일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상황을 대비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확진자 발생 초기 단계부터 유관 기관 협력 및 사후 조치까지의 훈련 과정을 통해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발견해 매뉴얼을 보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대구구치소는 10월 19일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신입 수용자의 확진 상황을 가정해 상황 전파, 코로나19 대응팀 긴급 소

집, 확진자 발생에 따른 단계별 조치,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한 토의 순으로 실시됐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용접과 타일 종목에 수용자가 1명씩 출전해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남구 소장은 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들에게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내실 있는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안동교도소 목공 동아리 ‘뚝뚝뚝뚝’의 직원 3명(교감 박연봉, 교사 윤진환, 교사 정두교)이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한편 교사 정두교는 목공 종목에서 동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직원 건강검진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건강검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해 안동성소병원 건강검진센터의 방문 검진으로 진행됐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수용자 물품 기증

김천소년교도소는 10월 19일 사단법인 공공협력

원으로부터 마스크 1만 장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마스크는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동수 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수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50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했다. 이번 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하고 직원 및 수용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는 10월 20일 에쉬튼호텔과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공동 마케팅을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주교도소는 10월 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북센터 및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중독 및 아동학대 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중독 및 아동학대 수용자 심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지원, 정보 공유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반부패·청렴 실행위원회 개최

통영구치소는 10월 5일 반부패·청렴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바로잡고자 실시됐다. 차광식 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지를 높이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청렴한 교정 이미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백지정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밀양구치소는 10월 25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이동 헌혈 버스에서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학생 장학금 전달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10월 20일 상주중학교와 사벌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성적 우수 학생 및 선행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총 6명에게 12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 방문

대전지방교정청은 10월 5일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맞이해 배제대학교 등 5개소의 대회 현장을 방문했다. 정병헌 청장은 대회를 참관해 계호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참가한 수용자들에게 선전을 독려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대전교도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용자 4명이 출전해 타일 종목에서 동상(1명)

과 장려상(1명), 냉동기술 종목에서 장려상(2명)을 수상했다. 서호영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야망없이 지도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2021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 실시

청주교도소는 10월 20일 2021년 정부정책 소통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인 박지현 외부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양원동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2021년 정부 혁신 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10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류동수 소장은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헌혈 운동에 동참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양성평등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10월 14일 한국능력인재개발원 김은주 강사를 초빙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사례 등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조직 내 성별·세대 간 차이로 인한 소통 부재와 성 평등 인식을 개선하는 등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기회가 됐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온라인 PC 영상회의 실시

공주교도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통 활성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0월 7일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공주교도소는 업무용 PC에 웹캠을 설치해 각종 회의와 직원 교육 시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미소갤러리 작품 전시회 개최

충주구치소는 10월 18일 미소갤러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제각 작가의 작품 12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반부패·청렴 캠페인 실시

홍성교도소는 10월 동안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분위기 조성과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반부패·청렴 실행위원회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근무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공직자 행동강령 교육을 진행하고, 기관 내 청렴 계단 등을 조성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비대면 안면 인식 온도측정기 설치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 4일 비대면 안면 인식 온도측정기를 설치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 판단과 비접촉 체온 측정이 가능해 코로나19 방역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천안개방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설비를 확충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예정이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직원 격려 물품 증정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토스트를 전달했다. 장승구 소장은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기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는 직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승진 직원 임용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0월 15일 승진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사항을 고려해 진행됐으며, 꽃다발 증정과 기념 촬영 등 축하의 자리로 마련됐다. 박대철 소장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에 걸맞은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규

수용자 물품 기증

광주지방교정청은 10월 18일 문귀례(법률선진신문) 대표와 문만식(목포교도소) 교정위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마스크 10만 개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된 마스크는 광주지방교정청 소속 9개 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용해 청장은 “마스크 기증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예방과 수용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광주북부경찰서 업무협약 체결

광주교도소는 10월 6일 테러·재난 및 통합 방위 작전 상황 발생 시 상호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북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협약 추진을 위해 광주교도소 보안과와 광주북부경찰서 경비과를 실무부서로 지정·운영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 실시

전주교도소는 10월 15일 코로나19 상황관리팀 및 의료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임무를 지정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

순천교도소는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수용자는 코로나19로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금상을 수상했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교정 꽃동산 헌판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10월 19일 교정위원의 도움으로 조성된 교정 꽃동산 헌판식을 개최했다. 교정 꽃동산은 수용자와 함께하는 꽃 가꾸기를 통해 수용자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방문 민원인에게 교정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예정이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호근

직원 격려 물품 증정

군산교도소는 10월 25일부터 4일간 제76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햄버거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격려 물품은 코로나19 시국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증진을 위해 전달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용해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0월 20일 제주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상황 및 방역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일선 직원의 고충 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교도소 / 교위 김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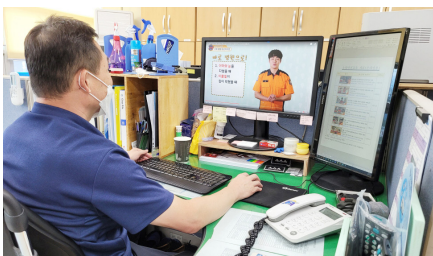
자연보호 봉사활동 실시

장흥교도소는 10월 13일 장흥군 천관산 등산로 및 주변 쓰레기 줍기 등 자연보호 보라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외 언택트 봉사활동으로 진행됐다. 김중근 소장은 “언택트 봉사활동을 확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비대면 합동 소방 훈련 실시

해남교도소는 10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신속한 화재 대응과 출동 태세 유지를 위한 자위소방대 편성 및 개별 임무표를 확인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정읍교도소 수용자 문화센터 내 도서관이 10월 13일 202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정읍교도소는 쾌적한 환경의 도서관 운영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심신안정을 도모하고, 양질의 도서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교위 임병현

임병현 교위는 현재 수용동 근무자로서 수용자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면서 애로 사항과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수용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용동 내 심적 불안자, 특히 수용자, 정신 질환 수용자의 동정을 세밀하게 관찰해 각종 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평소 수용자의 고충 사항을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세심한 지도로써 교정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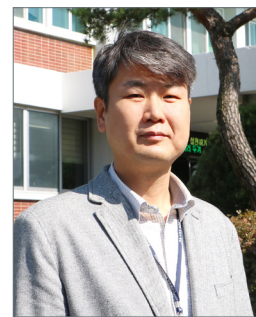
포항교도소 교도 김효동

김효동 교도는 2019년 임용 후 약 3년간 수용자 처우 및 교정교화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수용 관리 업무에 남다른 성과를 보이며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2021년 9월 20일 중앙통제실 근무를 명받은 김효동 교도는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수용자가 관복 하의를 묶어 화장실 문 상단에 걸어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효동 교도는 신속하게 위급 상황을 전파해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제지하고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홍성교도소 교도 김종관

김종관 교도는 우체국과 긴밀한 협의 후 우편물 등기 영수증 입력 방식을 성명과 수용자 번호를 동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업무 시간 단축 등 교정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특수취급우편물 접수 및 발송 대장과 서신 동봉 물품 확인 대장 서식의 삭제를 제안해 2019년 교정행정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응모상을 수상했으며, 비대면 신체 징후 측정기를 통한 교정시설 내 사망 사고 예방에 기여해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장려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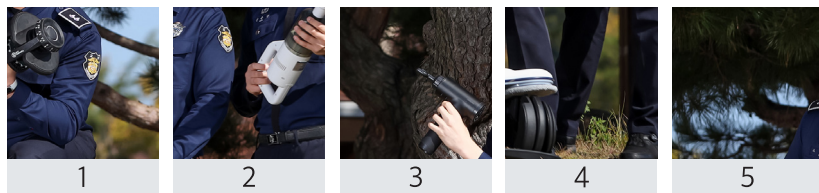
전주교도소 직업훈련교사 이정진

이정진 직업훈련교사는 2015년 임용된 후 6년간 직업훈련과 건축목공 직업훈련 교사로서 직업훈련생 건축목공기능사 과정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 건축목공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수용자 직업훈련생 13명 전원 합격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나아가 수용자 수시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수용 관리를 도모하는 등 우수 기능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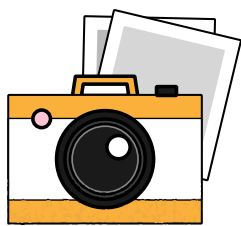
맞는 사진 찾기

아래 사진은 '교정인 원픽' 코너의 메인 사진입니다. 사진 속 사각형으로 표시한 5곳과 맞는 사진을 찾아 보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A-1, B-2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는 부분 5곳을 맞춰 보세요.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E _____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 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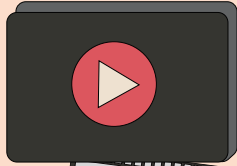
대한민국 **안심** 여행 캠페인

안전하게 떠나다 안심으로 머물다



루이는 AI 인공지능 가상기술로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입니다

교정본부 UCC·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우수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1



장려상

'교정시설' 누구에게는 희망입니다

2



3



참가상 5작품



QR 코드를 인식해 교정본부의 행복한 이야기와 다양한 소식을 확인하세요!



교정본부
페이스북

facebook.com/mojcor



교정본부
유튜브

youtube.com/교도소24시



교정본부
웹진

cowebzine.com